



조명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밝다(light, bright)를 생각할 것이다. 조명이 비춰지면 밝아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일정 부분 맞지만 TV 조명, 영화 조명, 사진 조명 등 카메라의 output을 통하여 사물을 본다는 관점에서는 다르다. 특히, 스튜디오와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빛을 최대한 차단하여 어떻게 하면 어둡게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다.

스튜디오에서는 barndoor, blackwrap, flag 등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부분에는 빛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카메라가 비춰지지 않는 부분에는 조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리고, 만고의 진리인 빛(light)이 있으면 반드시 그림자(shadow)가 생긴다. 이 그림자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며, 그림자로 인하여 입체감과 사실감 표현이 가능하다.

1. 뉴스 조명과 일반 조명의 차이점

뉴스는 가끔씩 특집으로 인하여 야외에 세트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드라마 조명이나 쇼 조명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뉴스 진행자가 대부분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자리에서 진행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드라마처럼 연기가 움직여서 동선이 있는 경우는 조명이 약간 잘못된 경우에도 장면의 전환으로 인하여 일반 시청자의 눈에 오래 기억되지 못하지만, 뉴스의 경우는 앵커가 계속해서 시청자의 눈에 반복적으로 비춰지므로 조명 세팅을 한 번 잘못하면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다.

드라마 조명의 경우는 1주일 단위로 녹화가 반복되기 때문에 세트나 조명 수정이 가능하지만, 뉴스의 경우는 세트가 제작되면 매일 생방송으로 뉴스가 진행되므로 중간에 세트 수정이 힘들다. 그러므로, 처음 세트 디자인이 나오고 조명을 하기까지 상당 기간(MBC의 경우 3주에서 4주 정도) 동안 세트 디자이너와 대화를 통하여 세트와 조명간의 공간적으로 여유를 만들 수 있으며, 시간적인 면에서도 다른 조명과는 여유가 있는 편이다.

예전의 경우 조명이 끝나고서 방송을 한 후에 여러 경로(경영진, 보도국, 앵커)를 통하여 조명 수정요구가 많았으나, 요즘은 방송 전에 모든 스태프(앵커, 보도국, 기술, 미술, 카메라)가 참여하여 여러 번의 리허설을 통하여 최대한의 공통분모를 찾아서 이러한 불만을 사전에 없앨 수 있었다. 그리고, 포맷이나 앵커가 바뀌는 경우도 이와 같은 과정을 되풀이하여 좋은 영상미를 추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생방송으로 진행되므로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확실한 back up을 확보해 두어야 하며, 이것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

2. MBC 뉴스 조명의 콘셉트

현재 방송하고 있는 'MBC 뉴스데스크'는 기존의 포맷과 많은 차이점이 있다. 그중 가장 큰 하나는 뉴스 진행 시 사용하는 어깨걸이로 DVE(Digital Video Effect)를 사용하지 않고, DLP(Digital Light Processing)에 영상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DLP에 영상물을 띄웠을 때 선명한 화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앵커에게 가는 key light의 산란광이 DLP에 영향이 미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앵커의 적절한 조도도 유지하고 DLP에 조명이 미치지 않게 key light의 거리와 batton과 조명기구의 높낮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 할 수 있다.

하나의 세트(뉴스센터 A studio)에서 여러 프로그램(12시 뉴스와 경제, 뉴스데스크, 마감뉴스 등)을 진행하며, 같은 프로그램이라도(뉴스데스크) 주중과 주말의 포맷도 다르고, 앵커도 다르므로 모든 프로그램을 만족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다. 그리고, 뉴스데스크와 마감뉴스는 DLP에 아이템 영상물을 이용하고, 12시 뉴스와 경제에는 DLP에 MBC 옥상 카메라 출력을 이용하여 시내 전경을 보여주므로 key light의 높이를 달리한 2개의 조명기구를 이용하고 있다. 뉴스데스크와 마감뉴스는 높은 key light를 사용하여 산란광이 DLP에 가지 않게 하고, 12시 뉴스와 경제는 낮은 key light를 사용하여 목 그림자를 길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목에 여러 개의 그림자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key light를 강하게 하고, fill light는 부드러운 diffusion filter를 사용하였으며, 세트 제작 시 desk에 desk light를 숨겨 넣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목에 생기는 그림자를 부드럽게 처리하였다. 하지만, 안경을 착용하는 앵커들의 경우 desk light나 key light가 안경에 반사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명기구의 높낮이나 앵글을 사전 리허설을 통해 조정해야 한다.



[DLP에 안경을 띄우는 경우]



[DVE를 이용하여 아이템을 띄우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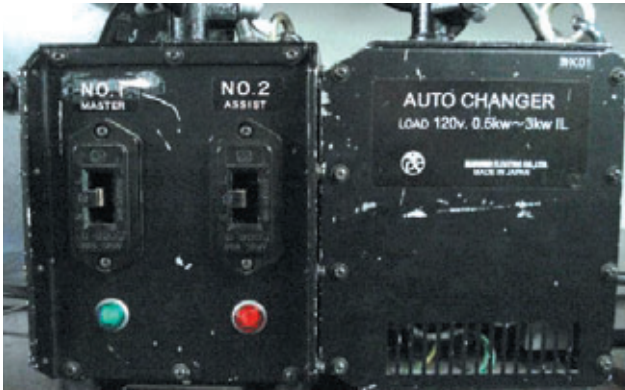
[18W 램프 desk light(FL CASTER 20), 방송 중에는 diffusion filter를 사용함]

3. 비상 시 대처방법

3-1. 램프가 이상이 생길 경우

램프도 수명이 있고, 제작과정의 불량으로 인하여 방송 중에 조명기구의 램프가 소실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뉴스 아이템이 1분 30초 미만이고, 통상적으로 뉴스 근무자가 한 명으로 그 시간 안에 근무자가 사다리를 이용하여 램프를 교체하기가 힘들다. 잘못하면 이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MBC에서는 key light에 한하여 auto changer를 이용하여 main 등기구의 램프가 소실되면 자동적으로 sub 등기구로 change 되게끔 시설하였다. 모든 기구를 그렇게 설계하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좁은 공간에 많은 기구를 달아놓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key light에만 설치하였다.



[AUTO CHANGER의 정면과 옆면]

3-2. 전원에 이상이 생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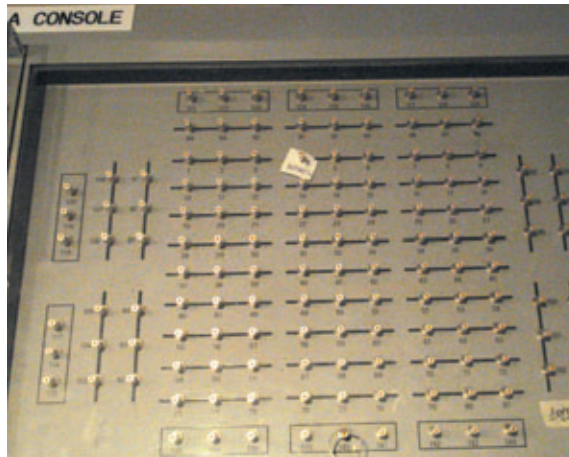
한전에서 공급되는 전원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2000년 2월 여의도 지하공동구 화재와 같은 경우)나 정전이 될 경우에는 무정전 전원 장치인 UPS(Uninterruptible Power System)가 작동한다. 하지만, 무한정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없어 필수 불가결한 방송장비와 최소한의 조명기구에만 전원이 공급되므로 비상용 조명기구는 정면에서 인물용으로 para beam 4구 4대를 사용하고 있다.



[비상용 para beam 400s]

3-3. 조명 콘솔에 이상이 생길 경우

조명 콘솔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backup으로 절체가 가능하며,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디머를 사용하지 않은 direct system을 이용하여 toggle switch를 위로 올려서 조명기구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시설하였다.



[비상용 direct system]

3-4. DLP에 이상이 생길 경우

앵커 뒤에 있는 DLP도 구입한지 오래되어 만약에 생방 중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blue curtain을 이용하여 chroma key로 대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뒤쪽에 조명 batton이 없어서 source-4를 이용하여 DLP에 세계지도로 처리하였다.



[source-4를 이용하여 DLP에 세계지도로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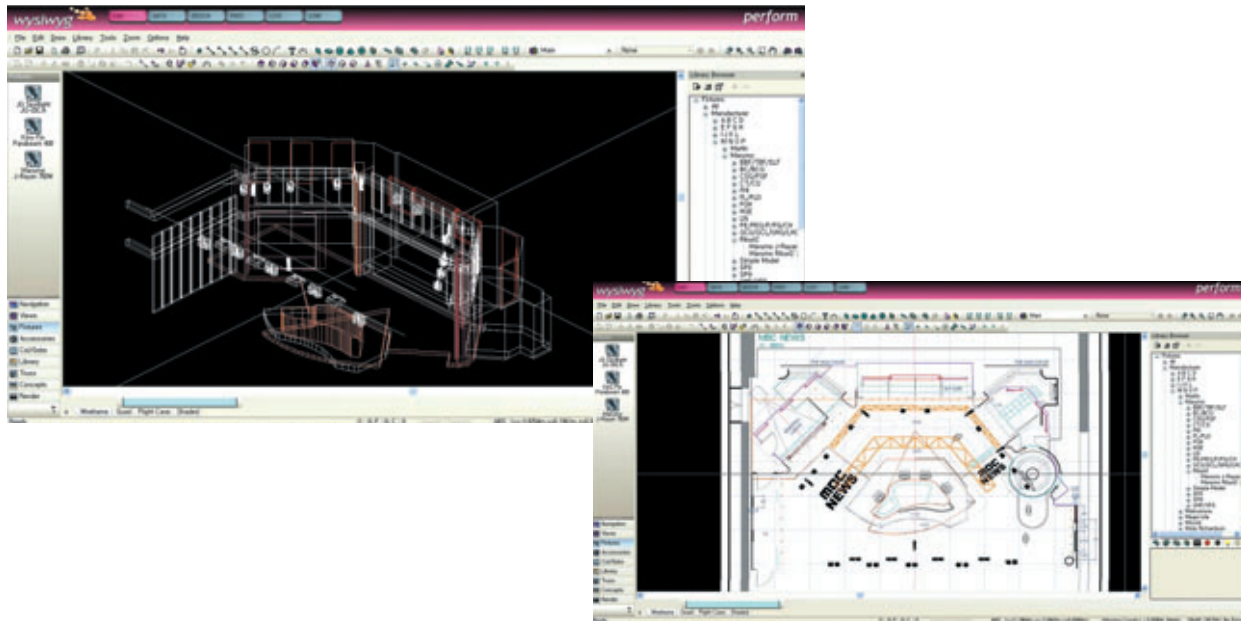
조도	남자 정면	1000lux
	여자 정면	900lux
	남여 후면	1500lux
카메라 기종		SONY HDC-1000
아리스 레벨		3.0-3.2
콘솔		marumo
딤머		marumo

4. 조도, 카메라, 조명 시스템

대부분의 뉴스가 남자와 여자 앵커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각각이 BS인 경우는 인물에 가는 조도가 달라도 video man이 아리스로 조절이 가능하다. 하지만, 2S인 경우는 같은 조도일 경우라도 남자에 비하여 여자가 반사율이 높으므로, 통상적으로 여자에 비해서 남자의 조도를 높게 유지하여 주어야만 두 사람의 얼굴 톤을 동일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다.

콘솔과 딤머는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대부분 기존의 완제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본은 구매자가 원하는 사양대로 제작해 주지만 대신에 구매자한테 인도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제품단가가 비싸지는 단점이 있다.

5. 뉴스데스크 조명 디자인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뉴스는 거의 대부분이 생방송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최우선이므로 항상 backup system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어야 하며, 방송하기 전에 전원이나 콘솔, 딤머, 램프, 필터 등을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후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